■ 실속 재테크

시중은행들이 꼽는 예·적금 '스테디 셀러'

교통비 적립하고 불우이웃 돕는 적금 인기

'KJB미즈월복리…' 年 4.92% 수익률
신한 '생활의 지혜' 사용액 5% 적립
하나 '바보나눔' 계좌당 100원 기부

예·적금을 하고 싶지만 어떤 상품이 더 이익을 줄지 망설여 진다. 이럴 때는 시중은행들이 꼽는 '스테디 셀러' 상품을 고르면 금리나 카드사용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의 'KJB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지난해 9월 선보인 후 1인당 판매금액이 5000만원 한도임에도 6개월만에 최고 판매액을 기록한 월복리 거치식 예금상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로 가입계좌는 2만3372개, 가입금액은 3597억원(3월 현재)에 달한다.

이 상품은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및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라 최고 0.4%포인트의 다양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 가입기간 고객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0.1%포인트의 '행복 Event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0.4%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 4.15%에 0.1%포인트의 이자를 더해 4.25%가 되고 여기에 최고 0.4%포인트의 우대금리와 0.27%포인트의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이 상품의 정기예금 수익률은 4.92%가 된다.

우리은행은 올 1월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용 (아이터치(iTouch)패키지'를 내놨다. 이 패키지는iTouch우리통장, iTouch 그린적금, iTouch우리예금 3가지로 종이통장을 사용치 않은 친환경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환경부와 제휴해 발급하고 있는 '우리그린신용카드' 우리V체크그린타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통장은 이들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계좌로 이용하면 100만원 까지 최고 연 3.5%의 금리를 받는다.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 적금'은 실생활의 소비와 저축 개념을 결합시켜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제작된 상품이다. 지난해 1월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가입계좌는 31만3000개, 가입금액은 67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으로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이 가능한 1년제 적금 상품. 이 적금에 가입하고 '생활의 지혜 전용카드'를 소지하면 대중교통비, 점심식사비, 대형마트 사용액의 최대 5%가 적금으로 적립된다.

하나은행의 자유적립식 적금 '바보의 나눔'은 평생 나눔의 삶을 살았던 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기려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 가입 계좌 당 100원의 기부금을 '바보의 나눔'에 기부하게 돼 있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금액은 월 1만~50만원까지. 3년 기준 기본금리가 연 4.7%로 만기에 해지금액을 이 재단으로 이체하면 우대이율을 적용받아 최대 연 5.95까지 금리가 높아진다.

KB국민은행은 젊은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월복리 적금인 'KB국민 첫재테크 적금'을 지난해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기본이율이 연 4.5% 이지만 우대금리, 월복리 효과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 5.2%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 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춰

경기회복 불투명
3.4%→3.3%로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10개 주요 국외 IB가 2월 말 기준으로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3.3%다. 9개 대형 IB가 1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평균 전망치 3.4%에서 다시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IB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7월만 해도 4.4%였으나 9월에는 3.9%로 떨어지는 등 내리막길을 걸었다.

UBS는 IB들 가운데 가장 낮은 2.1%를 제시했다. UBS와 더불어 비관적인 견해를 고수해온 노무라는 올해 한국의 수출과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췄다.

올해 한국 수출증가율이 20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소비 전망도 어둡다고 노무라는 지적했다. 하반기 수출은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상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2008년 -13.9%를 제외하면 2002년(8%) 이래 가장 낮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상반기에 대거 앞당겨 집행되고 기업 세금감면조치가 없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 부양이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맥주 모델 됐다

하이트진로

'피겨 여왕' 김연아가 처음으로 술 광고 모델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22일 김연아를 하이트맥주 리뉴얼 제품의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어컨, 우유, 의류, 커피 등의 광고 모델로 친숙한 김연아가 술 광고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맥주의 이번 리뉴얼제품은 깨끗한 맛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맥주 저장에서 여과까지 전 공정의 온도를 0도 이하로 유지하는 '아이스 포인트 빙점여과공법(Ice Point Filtration System)'을 도입했다.

이공법을 통해 맥주의 불순물과 잡미를 제거하고 엄선된 고급 호프를 사용해 향과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 제조 공정에서는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는 '산소차단공법(Air Blocking System)'을 통해 신선함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이 22일부터 글로벌 ATM서비스를 개시해 관광객 등 외국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광주은행 '글로벌 금융' 가동

영어·중국어·일본어 ATM 서비스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2일부터 글로벌ATM 서비스를 개시했다.

글로벌 ATM 서비스는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등 외국인이 광주은행 ATM을 통해 자국의 본인계좌조회,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가 제공 돼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이 제공하는 글로벌 ATM 서비스는 세계적인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뿐 아니라 미국의 디스커버(DFS), 일본의 JCB, 그리고 중국의 CUP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이번 글로벌 ATM서비스 개시로 인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수엑스포, 영암F1 그랑프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우리지역의 각종 국제행사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채무·담보권도 신탁 가능"

금융위 자통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되도록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 26일부터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이 확대되는 신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통법 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돼 채무(소극재산)와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했다.

채무와 담보권도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위탁자의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다.

현재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은행, 보험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로 활동하는 신탁업자의 경우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또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신탁 된 신탁재산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연합뉴스

한병에 800만원…발렌타인 40년 출시

스카치 위스키인 발렌타인 40년산이 국내에 출시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40년(700㎖)'을 국내 주요 백화점과 호텔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백화점 판매 가격은 800만원이다.

이 술은 세계적으로 연간 100병만 한정 생산된다.

몰트와 그레인 원액을 블렌딩해 마스터 블렌더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40년간 숙성시킨 발렌타인 최고 연산 제품이라고 페르코리아코리아는 설명했다.

병 세공은 영국 최고의 장인인 리차드 폭스가 맡아 마개와 목걸이 장식, 인증 문장, 라벨, 베이스 컵(위스키 받침) 등 다섯 곳에 순도 90% 이상의 은 장식을 했다. 각 병에는 출시 연도와 함께 1~100의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

국내 전 구매 고객에게 발렌타인 브랜드 홍보 대사가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제품 홍보를 해 준다.

/연합뉴스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에 선임

광주신세계 대표를 지낸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제19대 회장에 선임됐다.

백화점협회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한 뒤 신세계에 배속돼 광주신세계 대표, 센텀시티점장을 거쳐 2009년부터 백화점 대표를 맡아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